가채점 낮으면 수시 2차, 높으면 정시 노려라

2학기 기말고사·내신 잘 챙기고 정시, 지나친 하향지원은 말아야

수험생 입시전략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곧바로 가채점을 실시해 그 결과로 대입 지원전략을 본격적으로 짜야 한다.

현재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은 학생들이라면 수능 이후에 수시 2차 접수를 실시하는 대학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시를 노릴 경우 지나친 하향 지원을 하기보다는 대학의 군(群)별 전형인 가·나·다군 3번의 지원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을 경우에는 정시 지원이 유리하다. 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수능 이후에도 원서를 받은 수시접수 대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채점 점수로 유·불리 파악해야=어렵게 출제된 영역을 잘 본 수험생은 표준점수 반영 대학을, 쉽게 출제된 영역을 잘 본 수험생은 백분위 반영 학교를 노리는 게 좋다.

표준점수는 상대적 서열을 따지는 점수로 3개 점수 중 상위권 변별력이 가장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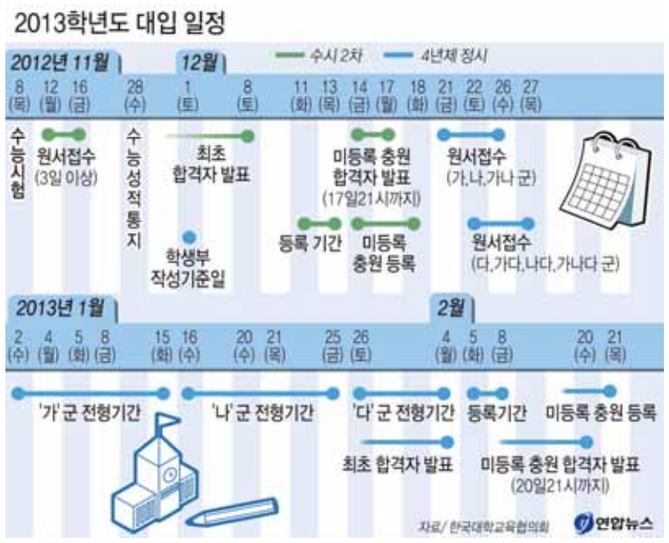
영역별 평균점수를 토대로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져볼 수 있도록 환산한 점수다. 다른 수험생이 몇 점을 받았는지에 따라 내 점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원점수와 다르다.

최상위권 학생 간의 미세한 점수 차이도 구분할 수 있어 대다수 상위권 대학은 수능이 주요 전형요소인 정시에서 표준점수를 본다. 원점수 분포에 따라 점수 변환에 따른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백분위는 영역별 전체 응시자 가운데 본인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비율을 0에서 100까지 표시한다. 성적이 좋을수록 수치가 높다.

백분위는 중위권 대학이 정시에서 많이 쓰며 수시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 일부 학교가 반영한다.

등급은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에 근거해 수험생을 1~9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 이고 2등급은 다음부터 상위 11%까지, 3등급은 또 그 다음부터 상위 23%까지며 마지막 9등급은 하위 4%가 해당한다. 등급 구분 점수에 있는 동점자에게는 상위 등급을 준다.



등급은 수능 성적을 9단계로 단순화해 성적 분포를 간편하게 살펴 볼 수 있지만 비슷한 실력을 가진 수험생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등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일부 대학이 정시에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점수 올랐으면 정시 집중=원점수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므로 영역별 예상 표준점수와 백분위, 예상 등급을 따져봐야 한다.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면 정시 지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원서를 접수한 수시 2차 전형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수시에는 추가 합격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숭실대 등은 수능시험 직후인 10일과 11일 대학별 고사를 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를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가 평소보다 낮다면 수능 이후에 계속되는 수시 2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시2차 지원 적극 활용=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수능 이후에 계속되는 수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천대와 이화여대, 연세대(원주) 등 수능 이후에 수시 2차 원서접수를 하는 대학들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다.

수시 2차는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많지 않고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의 지원이 늘 수 있어 정시모집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는 수시에서 추가로 합격하더라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지나친 하향 지원은 금물이다.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이화여대 등 대학에 따라 매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철민(숭덕고) 나눔 입시컨설팅 연구회장은 "대다수 학생들이 수능 후에 보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신점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수능 이후 수시2차 원서접수 대학

대학명	전형명	선발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원서접수기간
가천대(글로벌)	적성고사	528	적성고사 80%+학생부 20%	×(글로벌경영, 경찰안보 ○)	11.12~16
	학생부우수자	276	학생부 100%	○	
가천대(메디컬)	적성고사	112	적성고사 80%+학생부 20%	×	
	학생부우수자	76	학생부 100%	○	
덕성여대	학생부우수자	268	학생부 100%	○	11.12~16
동덕여대	일반전형	112	학생부 100%	○	11.12~16
명지대	일반전형(학생부)	536	학생부 100%	○	11.12~16
상명대	학생부우수자	95	학생부 100%	○	11.12~15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196	학생부 50%+논술 50%	○	11.12~16
	학교생활우수자Ⅱ	196	-1단계:서류 100% (5배수) -2단계:서류 60%+심층면접 40%	×	
성신여대	일반학생	394	학생부 100%	○	11.12~16
세종대	일반학생	255	학생부 100%	○	11.12~14
수원대	일반학생	500	학생부 50%+적성고사 50%	×	11.12~16
이화여대	학업능력우수자	400	학생부 100%	○	11.12~16
인천대	일반학생	203	-1단계:학생부 100%(4배수)	×	11.12~16
	지역우수인재	439	-2단계:학생부 60%+면접 40%	○	
한국기술교대	3차 일반전형	102	학생부 100%	○	11.12~15
한국항공대	학업성적우수자	126	학생부 100%	○	11.12~16

■ 수시2차 주요대 논술 출제 경향

대학	시험일	논술 반영비율	논술 출제 경향
경희대	11.10~11	일반학생전형 -우선설발:60% -일반선발:40%	120분 유형의 계열별(인문, 자연) 논술 시행 [인문계] 사회계열과 인문/예체능계열로 구분해 논술고사 실시. 두 유형 모두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며 3문제로 구성. 사회계열에서는 수리형 논제 출제 [자연계] 수리, 과학 교과 문항으로 구성된 수리+과학형 논술고사 실시, 수리 문항은 단독형으로 1문항을 출제하되 과학 문항은 물리, 화학, 생물로 구성된 1문항 출제
서강대	11.10~11	일반전형 -우선선발:70% -일반선발:50%	120분 유형의 계열별(인문, 자연) 논술 [인문계] 한 문제 당 4~5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며, 두 문제가 서로 다른 제시문으로 구성되는 다문항 형태로 2 문제 출제 [자연계] 수리 단독형 2문항으로 구성된 수리형 논술고사 실시
성균관대	11.10~11	일반학생전형 -우선선발: 70% -일반선발:50%	120분 유형의 계열별(인문, 자연) 논술 실시, 분량 제한 없음 [인문계] 경영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로 구분해 출제되지만 계열별 특성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님. 4문제가 출제되며, 4~5개의 제시문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문제와 도표 해석 및 활용 능력 문제가 특징 [자연계] 수리 단독형 2문항, 과학 교과별 물리, 화학, 생물 3문항 출제. 각각의 논제는 여러 개의 소논제로 다시 구성. 시험 시간 동안 풀이할 논제 수는 많지만 평이한 난도
중앙대	11.10~11	수시통합(논술형) -우선선발:80% -일반선발:70%	120분 유형의 계열별(인문, 자연) 논술 실시 [인문계] 인문 문항과 수리 문항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출제 경향 유지. 답안 분량은 문제1 600자 내외, 문제2 400자 내외, 문제3 1,000자 내외 요구. 글의 완성과 통합을 중요시하는 논제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출제 [자연계] 수리, 과학 교과 지식을 서로 연계하여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합교과형 5문항 출제
고려대	11.17~18	일반전형 -우선선발:70% -일반선발:50%	100분 유형의 계열별(인문, 자연) 논술 실시 [인문계] 850~950자 분량의 비교 분석을 특징으로 하는 인문형 문제 1개와 수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리 문제 1개로 구성 [자연계] 수학1 논제는 필수. 과학 문항은 4논제(물리/화학/생물/지학) 중 1논제를선택하여 해결. 각각의 논제는 다시 여러 개의 소문항들로 구성하되 점차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형식
한국외대	11.17~18	일반전형 -우선선발:70% -일반선발:50%	120분 유형의 통합교과형(1,800~2,000자) 논술 실시 [인문계] 영어제시문 A, B와 자료 4개로 구성되며 3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출제. 문제1 400자내외, 문제2 600자 내외, 문제3 800자 내외의 답안 분량 요구. 영어 독해 능력과 활용 그리고 분석적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 [자연계] 논술고사를 시행하지않음
한양대	11.17~18	일반우수자전형 -우선선발:70% -일반선발:50%	120분 유형의 계열별(인문, 상경, 자연) 논술 실시 [인문계] 인문계열은 1,400자 분량의 통합된 1문제, 상경계열은 1,000자 분량의 인문 문항 1개와 수리 문항 1개 출제 [자연계] 수리 2문항(소논제 4~6개)으로 구성된 수리형 논술고사 실시. 수리 교과의 전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하되 수열의 극한, 미분과 적분 영역의 출제 빈도가 높음. 제시문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짧게 제시
서울시립대	11.20	일반전형 -일반선발:70% -일반선발:50%	120분 유형의 계열별(인문, 자연) 논술 실시 [인문계] 고교 교과과정에 충실한 논술고사 유형으로 3문제 출제. 답안 분량은 문제1 600자 내외, 문제2 400자 내외, 문제3 1,000자 내외 요구 [자연계] 수리 3문항으로 구성된 수리형 논술고사 실시. 각각의 문항은 기본 개념과원리를 응용하는 평이한 수준의 논제들로 구성. 제시문은 해결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

언어 비문학·수리 '가' 서술형 통합적 사고 요구 고득점 변수

광주 고교교사 분석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은 이번 수능에서 언어의 비문학 문제, 수학 서술형 문항의 득점 여부가 수험생들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언어=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게 총평이다. 만점자가 수능출제본부의 목표치인 1%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능 출제본부도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규연(수완고) 교사는 "과학 지문으로 이상기체와 기체의 상태방정식을 다룬 30번, 31번 문항 등 변별력 있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다"며 "이과 학생들이 다소 유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리=박연종(송원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가' 형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 까다롭고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좀 더 어려웠다. 지수와 로그 문항의 경우 ebs교재와 연계된 문제임에도 수험생들이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철민(숭덕고) 교사는 "수리 '가' 형의 경우 서술형(5개 문항)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도형과 연관된 문제들이고 계산식이 복잡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 '나'는 지난해 보다 어렵고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어=오창욱(대동고) 교사는 "지난해 쉬웠던 수능보다 어렵고, 지난 9월 모의고사 보다는 쉽다"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들이 빈칸이 두개로 구성된 빈칸 추론 유형이나 독해, 문단 순서 맞추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관계자는 "작년보다는 다소 어렵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쉬웠다"며 "다만 빈칸 추론 문제 6문항 가운데 4문항이 다소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에서 만점자가 2.67%에 달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너무 힘들었어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8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에서 시험을 마친 한 학생이 정문에서 기다리던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역별 만점자 1% 수준 노력"

권오량 출제위원장

8일 시행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쉽게 출제했다고 수능 출제본부가 밝혔다.

권오량 수능출제위원장(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학교 수업에 충실한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별 만점자 1%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언어는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어렵게, 수리는 작년 수능·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어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게,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쉽게 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험생의 수능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70% 이상의 문항을 EBS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수능-EBS 교재의 영역별 연계 비율은 언어 72.0% 수리·외국어(영어)·사탐·과탐·제2외국어 70.0% 직탐 72.6%다.

권 위원장은 "언어·외국어는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을 쓰거나 2개 이상의 문항을 병합해 새로운 문항을 만들거나 주어진 자료를 변화해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험생 가정 화재로 수험표 긴급 재발급 재난경보 송출사고…학부모 항의 빗발쳐 휴대전화 보관 등 '부정행위자' 7명 적발

경찰·소방관 수험생 수송작전 '일사불란'

광주·전남 이모저모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8일 광주·전남지역 88개 시험장에서 4만895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다.

각 시험장 앞에는 새벽부터 학부모와 교사, 후배학생들이 수험생에게 커피와 캔디 등을 나눠주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서 직원들은 시험장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수송했다.

○…8일 새벽 0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건물 4층 김모(여·53)씨의 집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함께 김씨의 딸인 신모(19)양의 신분증과 수험표가 소실.

신양의 딱한 사정을 들을 경찰이 광주시교육청 당직근무자와 협의해 이날 새벽 2시30분께 재발급한 신분증과 수험표를 신양에게 전달해 무사히 시험에 참가.

○…2교시 시험이 막 시작된 오전 10시30분께 목포시 옥암동 부주산에 설치된 재난 경보용 확성기에서 '딩동댕' 차임벨과 함께 "목포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알려 드립니다…"라는 시험 방송이 연속 2회 1분가량 방송돼 인근 제일여고와 영흥고까지 울려 퍼지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항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유지보수업체는 "성남시 본사에서 원격으로 확인하던 중 담당 직원의 실수로 수능시험일인 줄을 깜박 잊고 송출 테스트를 하게 됐다"고 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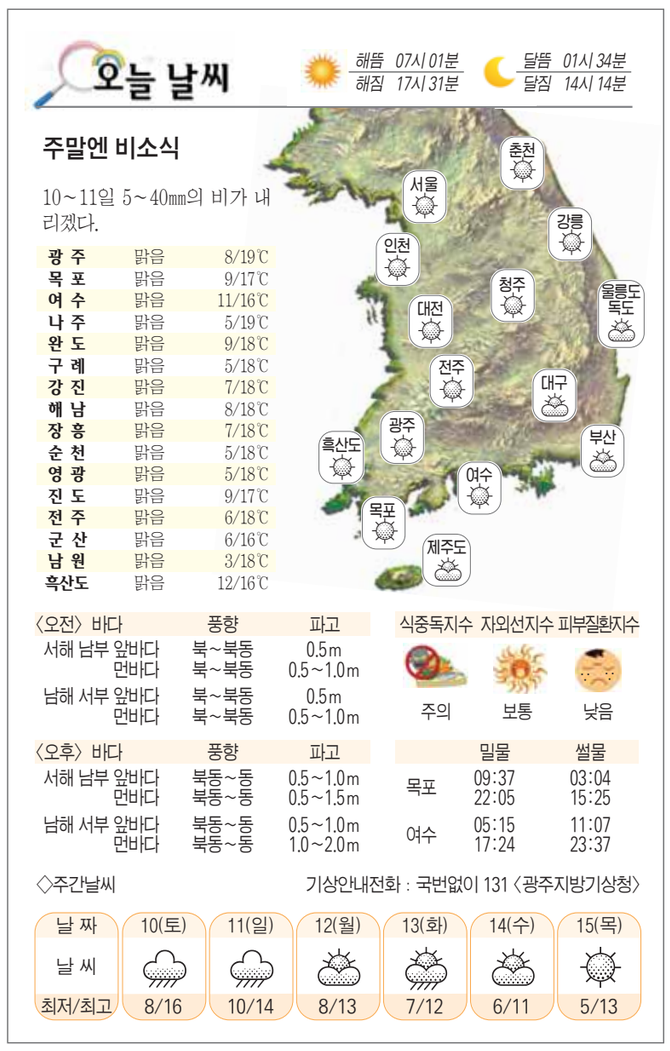
○…광주시는 시장과 부시장 관용차를 수능 수험생 긴급 수송에 투입해 큰 호응.

이날 수험생 2명이 강운태 시장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모두 49명의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장으로 이동했으며 수험생들은 시청 직원들에게 초콜릿으로 답례.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6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 조치.

광주지역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를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수험생 2명이, 선택과목 시험에서 순서를 바꿔 시험을 치른 수험생 4명이 각각 적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화됐다"고 설명.

순창군 순창여중에서 시험을 치르던 서모(18)양은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중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려 감독관에 적발돼 퇴실 조치.

/김대성·김경인기자 bigkim@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순창=이동희기자 dhlee@